

(.8페이지에 이어)
가 많은 판결이란 뜻이다.
대법원의 이상한 행태는 연
이어지고 있다. 대법원은 은
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당선
무효형도 뒤집었다. 대법원이
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을
유죄로 보면서도 검찰의 항소
장 부실 기재라는 '절차적 하
자'를 문제 삼아 당선무효형을
취소시킨 이례적 경우였다.여
당 시장을 봐주기 위한 판결
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.
4·15 총선 이후 법원의 정

치 판결 우려가 커지고 있다.
'드루킹 재판'을 받고 있는 김
경수 경남지사는 2심 재판이
수차례 연기되더니 선고가 올
해 말이나 가능할 것이라고
한다. 선거법 사건은 1심은 6
개월 이내, 2·3심은 3개월 내
에 끝낸다는 규정이 있지만,
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릴 경우
김 지사는 임기를 다 채울 가
능성도 있다. 대통령을 '형'이
라고 불렀다는 유재수 전 부
산시 부시장은 업자들에게 뇌
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재판을

받다가 받은 것도 있지만 준
것도 있다'는 희한한 법리로
집행유예로 석방됐다. 돈을 준
사람은 구속됐는데 정작 돈을
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
생은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
다.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
할 때마다 경호원을 대동하고
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등
장해 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
다. 법원이 '범치의 최후 보루'
가 아니라 '정권의 최후 보루'
로 변질되고 있다.

운동권 마초



민주당에는 말로는 페미
니스트이고 실제로는 마초
인 사람이 적지 않다. 작년 5
월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숨
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
도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었
다. 그는 평소 "제 아내는 딱
북이 장사를 하며 저를 뒷바
라지했다"며 "늘 미안하게 생
각한다"고 했다. 그렇게 미안
하게 생각하는 아내를 무참하
게 살해했다. 마초는 어느 당
에도 있을 것이다. 그런데 다
른 당 마초들은 페미니스트인
척은 하지 않는다. 이 까짜 페
미니스트들이 가장 많은 곳은
민주당 내에서도 운동권 그룹
인 듯하다.

을 유린한 인물이 많다. 갑작
스러운 의혹에 대한 당의 대
처를 묻는 기자에게 "xx자식"
이라고 욕설을 한 여당 대표
는 '가부장적 마초'라고 할 수
있다. "페미니스트 대통령이
되겠다"던 정권에서 이런 일
이 벌어진다.
▶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
을 해오다 지금은 권력 실세
가 된 '나꼼수' 멤버들부터가
온통 마초들이다. 김여준은
재작년 미투 운동이 벌어졌
을 때 '미투 공작실'을 제기했
고 김용민은 콘돌리자 라이선
스 전 미국 국무장관을 "살인범
을 풀어 성폭행해 죽여야 한
다"고 했다. 비키니 차림 여성
이 가슴팍에 '나와라 정봉주'
라고 쓴 사진을 보고 "그 여
성의) 생물학적 완성도에 감
탄했다"고 한 이들이 나꼼수
멤버들이다.
▶마초(Macho)란 원래 스
페인어로 '남성적'이란 뜻
이다. 흔히 근육질의 남성을
마초라고 부르는데 대개 여
성을 배려하고 친절하게 대하

는 이미지였다. 그러나 그 태
도가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
존재로 보는 것이라는 시각이
생겨나면서 마초는 부정적인
의미를 갖게 됐다. 걸핏하면
웃옷 벗어 시선 끌려는 푸틴
러시아 대통령을 마초라고 부
르는 이유다.

▶민주와 정의, 여성 인권
과 평등을 스스로 독차지한
이 정권에 왜 이렇게 마초가
많은 것일까. 권인숙 민주당
의원은 "1980년대 운동권은
집단주의적이며 군사주의적
동원 문화, 가부장적이고 권
위적 조직 문화에 대한 비판
과 대안을 생산하지 못했다"
고 책에 썼다. 80년대 대학생
주사파 운동권 내부에서 마초
적 행태가 비웃됐다는 얘기도
많다. 이 마초들이 자칭 페미
니스트'로 변장했다. 희한한
것은 이 운동권 마초들을 정
권 주변의 일부 여성이 적극
옹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
이들이 운동권 마초들의 온
상이 되고 있다.

"없는 살림에 유학 보내는 비법" 이인영 · 김두관 · 윤미향 논란



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많
지 않은 재산에도 자녀들이
해외유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
면서 누리꾼들이 이를 빗댄 '
없는 살림에 자녀 유학 보내
는 비법' 등의 게시물에 올라
인상에서 화제가 됐다.

통일부는 이인영 장관 후
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용
논란과 관련해 14개월간 사용
한 체류비는 총 3000여만원
에 불과하다고 16일 밝혔다.

통일부는 이날 이인영 후
보자 아들의 해외 체류 생활
비 관련 자료를 내고 "월세
와 생활비를 포함한 체류비
는 전액 후보자 측의 송금으
로 충당했다"면서 "송금한 금
액은 월세 580만원(5102.5 스
위스프랑)과 생활비 2482만
원을 합쳐 총 3062만원"이라
고 설명했다. 이어 "이는 집세
로 월평균 50여만원을 지불하
고 생활비로 월평균 170여만
원을 사용한 것"이라고 했다.
스위스의 물가에 비해 집세가
지나치게 싸다는 의견에 대
해선 "어떤 형태로 숙박했는
지는 알 수 없다. 월세로 50여
만원을 지급했다는 정보만 있
다"고 했다.

통일부는 또 "후보자 자녀
의 스위스 체류비와 관련해
지나친 의혹이 난무하는 것은
명백한 허위 주장"이라면서 "
앞으로는 악의적 왜곡 주장이
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"고
덧붙였다.

이인영 후보자 측은 아들
의 스위스 체류 기간은 2017
년 8월~2018년 10월까지로
송금내역 등 증빙 자료는 국
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.

앞서 이인영 후보자 측은 호
화유학 의혹이 불거지자 아들
이 1년간 스위스 학교에 다니
면서 지출한 학비는 1만 220
스위스 프랑으로 당시 한화로
약 1200만원이라고 밝혔다.

이인영 후보자의 아들은
2013년 경기 파주의 디자인
교육기관인 타이포그래피배
곳(파티)에 입학했고, 이후 파
티와 학·석사과정 편입 협약
을 맺은 스위스 바젤의 북서
스위스 응용 과학예술대학에
서 학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
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지난달에는 전직 검찰 간
부가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
자녀 유학 비용에 의문을 제
기하면서 김 의원이 공수처(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) 1호
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
장했다.

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
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
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
북에 "김두관은 2010~2012
년 경남지사를 했고, 2011년
신고재산은 1억1919만 원이
다. 아들은 2011년~2017년까
지 7년간 유학했다. 딸도 중국
에 유학했다"며 "아들의 유학
기간이 경남지사 재직시절과
겹치고, 2016년 20대 민주당
의원 시절엔 기획재정위원회
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알짜
배기 상임위원이었다. 그때도
아들은 영국 유학중이었다"
고 설명했다.

김종민 변호사는 "김두관
아들과 딸 유학자금 출처 문
제는 사생활 보호의 영역이
아니다. 고위공직자 부패의혹
문제"라며 "공수처가 출범하

면 제1호 수사대상이 김두관
이 돼야 한다"고 밝혔다.

앞서 윤미향 의원 자녀 유
학비용에 대한 논란도 있었
다. 윤미향 의원은 딸의 미국
유학 비용 출처에 대해 "간접
조작 사건으로 고통받은 남편
과 가족의 배상금"이라고 해
명했다.

윤미향 의원은 정의기억연
대(정의연)의 기부금을 딸의
유학비용으로 유용한 것 아
니냐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
"2018년 자녀 유학을 고민할
당시, 남편의 배상금 지금이
이뤄졌다"고 했다.

윤미향 의원 딸은 현재
UCLA(캘리포니아주립대 로
스앤젤레스 캠퍼스)에서 석
사 과정을 밟고 있다.

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리
당원 게시판에는 '저렴하게
해외 유학 보내기 특강 요청
합니다'란 제목의 비판 글이
올라오기도 했다.

한 당원은 이인영 후보를
겨냥해 "세계에서 가장 물가
가 비싼 나라 중의 하나로 전
문학적인 유학비를 자랑하는
스위스에 아들을 유학 보내신
평생 정치인 모태 정치인 이
인영 의원님을 특강 강사로
초청한다"며 "저도 학창시절
에 꽤 공부 잘했는데 돈 없애
서 유학은 못 갔는데 이제 아
이를 기르는 입장에서 방법
좀 배우고 싶다"고 했다.

또 온라인상에서는 "민주
당 의원들이 없는 살림에 자
녀 해외유학 보내는 법을 책
으로 만들면 베스트셀러가 될
것"이라며 비꼬는 게시물도
상당수 게시되고 있다.

(.8 페이지에 이어)
□ 술 취한 척 '뽀뽀'하기

□ 집에 데려다 준다며 택
시 안에서 일방적으로 뽀뽀하
고 추행하기

□ 바닥 짚는 척 하며 다리
만지기

등 성희롱, 성폭력 예방 교
육에 등장하는 사례가 서울시
의 여성 직원들에게 일상적으
로 있었다. 서울시 정규직 직
원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서
의 유·무형의 불이익을 우려
하여, 비정규직 직원은 재계
약, 채용 등 일신상의 신분
유지 불안을 이유로 신고하기
어렵다.

비서실 직원은 성희롱 예
방 교육에도 참석하지 않거나
참석할 수 없었다. 비서실 근
무자가 서울시청 내 '공식창
구'로 문제를 신고하기는 더
더욱 어려운 일이다. 서울시
는 성폭력 사안 발생시 원스
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
으나, 지난 2020년 4월에 있
던 행정직 비서관에 의한 성
폭력 사건에 대해 이를 적용
하지 않았다.

서울시는 인권침해 신고
처리, 성희롱 성폭력 사안 대
응 등에 대해서 어느 지방자
치단체나 공공기관보다 앞
서 있는 정책과 매뉴얼, 처리
사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
관이다. 그럼에도 '말할 수 없
었던' 피해와 노동권 침해, 성
차별적 성역할과 성폭력 등에
대해 어떻게 조사하고 개선할
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.

■ 사임한 전 서울시 별정
직, 임기제 - 정치, 사회 '리더'
들의 책임
이번 사안에서 박원순 3

선 서울시청과 지난 수년 간
의 서울시 행정, 사회, 정책을
만들어온 사람들은 다수 사임
하였다. 박원순 서울시청 재
임기간에 시행된 좋은 정책
과 제도과는 별개로, 또 다른
측면으로 존재했던 성차별과
성폭력을 책임 있게 조사, 예
방하려면 사임하거나 면직된
전 별정직, 임기제 역시 그 대
상이 되어야 한다. 그러나 이
것이 2020년 7월 이후 서울시
민관합동조사단으로 가능한
가? '박원순 정치'를 함께 이
루었던 사람들은 현재 어디
에서 어떻게 책임을 통감하
고, 성찰을 나누며, 개선을 도
모하고 있는가. 혹은 안희정,
오거돈 등의 사건에서처럼 책
임을 회피하고, 축소·은폐하
며, 피해자를 비난하고, 2차
피해와 퇴행적 인식을 확산
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
은 아닌가.

전 현직 고위 공무원, 별정
직, 임기제 정무 보좌관, 비서
관 중 7월 8일 피해자의 고소
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연락을
취하는 이들이 있다. 그런데
이에서 '책임'과 '사과'가 느껴
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.

□ 너를 지지한다면 정
치적 진영론에, 여성단체에
휩쓸리지 말라고 '조언'

□ 힘들었다고 위로하
며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
고 만류

□ 너와 같은 여동생이 있
으면 좋겠다고 친근감을 표시
하며 "그런데 000은 좀 이상
하지 않냐"며 특정인을 지목
하는 일방적 의견 제시

□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
다면 "확실한 증거가 나오
지 않으면 힘들 거야"라고 피

해자 압박

피해자와 지원단체는 피해
자가 공무원으로서 일해 왔고
앞으로도 일해 갈 서울시가
그동안의 잘못된 문제를 확인
하고, 더 성숙한 개선을 도모
할 것을 기대한다. 그러나 현
재 위와 같은 상황은, 서울시
가 15일 내놓은 대책을 통해
서는 본 사건을 제대로 규명
할 수도, 할 의지도 없는 것으
로 보인다.

피해자 지원단체는 2020년
7월 16일 현재, 아래 사항을
요구한다.

1. 경찰 수사의 지속 : 서울
시 경찰청은 서울시청 6층에
있는 증거보전 및 수사 자료
확보를 하라

2. 서울시, 더불어민주당,
여성가족부 등 책임있는 기관
은 피해에 통감하고 진상규명
필요를 말하면서도 그동안 말
해지지 않았던 경험과 고통을
말하는 '피해자'에 대해 '피해
호소인' 등으로 호칭하며 유
보적, 조건적 상태로 규정하
고 가두는 이중적인 태도를
멈추라. 성차별적 성폭력에
대한 고발에 대해, 이를 불가
지 상태로 보고 판단을 보류
하는 퇴행적 대응을 중단하
고, 적극적인 성폭력 문제해
결과 성폭력적 문화 개선에
나서라.

3. '서울시 관계자'들은 언
론에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
인 코멘트를 중단하고, 언론
인터뷰시 전 현직 직급과 부
서를 밝히라

4. 언론은 문제의 핵심이
무엇인지 고민하고, 이 사안
을 발생시킨 구조의 문제를
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
할을 다하라



SL Dental Centre on 4th ST

(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)

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

Tel: 403-228-5367 / Fax: 403-229-2876

website: www.sldentalcentre.ca

email: mission@sldentalcentre.ca

SL DENTAL CENTRE: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
2303 4th Street SW, Calgary, Alberta T2S 2S7

□ 문제는 잘 밝혀져야 한
다면 "확실한 증거가 나오
지 않으면 힘들 거야"라고 피